

[금융] 루나사태 재현되나 FTX파산에 코인시장 '대폭락' 06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과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 “국경 없는 기후·환경문제… 지구 전체 바라보며 살아야”



새벽을 여는 사람들

쓰레기센터

이동학 대표

2년간 유럽·아프리카 등 61개국 돌아 지구유랑 후 쓰레기문제 담은 책 출간

조직적 대응 위해 ‘쓰레기센터’ 만들어 쓰레기 발생부터 해결책까지 다방면 연구 기후위기 경각심 알리고, 환경 교육도

쓰레기 덜 나오는 방식 찾고 실행해야 나만 안전한 세상 없어… 공존이 살길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빠른 대한민국의, 이로 인해 향후 사회적 갈등이 매우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이 넘는 기간 세계여행을 다닌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그 시작은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살아 탐구해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는 여행 경비도 거의 없는 상태로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현지 인터뷰와 현장 견학을 진행하며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61개국 157개의 도시를 돌았다.

세계여행을 ‘지구유랑’이라고 표현한 이대표는 해당 국가와 도시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본 뒤 중화려한 도시 이면에 쓰레기 문제가 커져 이 누적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당초 갈등의 해결에서 지구 전체의 기후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2020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지구유랑을 하며 경험한 쓰레기 문제를 다룬 ‘쓰레기책’을 출간하며 기후문제와 쓰레기문제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중단한 2018년 이후 우리나라엔 합법적·불법적 쓰레기산이 증가했다. 이동학 대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쓰레기장을 살펴보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 베이 해안가 마을은 전 세계에서 떠밀려오는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대표는 “때마침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유행하면서 국경도 막히고, 우리의 실생활이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됐다”며 “이 전염병이 초기에 도무지 무엇인지 자세히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는 사람들 간의 접촉을 차단하고자 했고, 사람들 역시 극도로 대면을 꺼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스레 환경문제가 부각이 되었고, 우리가 소비하고 내버리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불법적인 ‘쓰레기산’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컨테이너에 몰래 담겨 개발도상국에 버려지는 현실들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올라가게 됐다”며 “책이 많이 팔리고 강연을 다니면서 ‘아! 말과 글만으로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예 쓰레기센터를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조직된 대응을 해나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표는 ‘쓰레기센터’를 통해 쓰레기의 발생부터 처리 과정, 해결책 등 다방면

으로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나 기초·광역 의회와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시민·공무원·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자발적인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대표는 한국과 다른 국가의 쓰레기 처리의 차이점에 대해 “한국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비해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이대표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웬만한 유럽국가들조차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하지 않아 페트병이나 캔에도 보증금을 붙여 잘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확장되는 데 비해 한국은 그런 제도 없이도 아파트 등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로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민들의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분리배출된 쓰레기의 운송과 선별, 처리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이나 한국은 향후 2030년까지 재활용 원료를 30%까지 쓰도록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버려지는 모든 쓰레기들의 분리배출과 재활용 단계까지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지금은 우리가 투명페트병 하나만 하고 있지만, 향후엔 반도체에 들어가는 플라스틱(PS)인 요쿠르트병을 따로 모아야 할 순간도 올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참여가 어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제도들이 계획되고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기업들의 ESG 경영을 비롯해 RE100 등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국민을 재해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개인이 나서서 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정부와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속가능 경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일이고, 시민들로서는 조금은 더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다”며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서 불평등은 확장되고 소외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된다. 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실업 안전망, 직업교육, 산업전환에 따른 기업 보조 등의 정책들 최소한으로 갖춰야만 이 위기를 함께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표는 쓰레기센터 활동으로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함께 돕고,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대표는 “아무리 작은 마을에 살아도 지구 전체에서 진행되는 변화의 흐름에서 빠져 나갈 수 없다”며 “이제는 지구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탑재해야만 한다. 경제·사회문제, 전쟁, 문화를 비롯해 특히 기후·환경문제는 국경이 없다. 지구 전체를 바라보며 살아야만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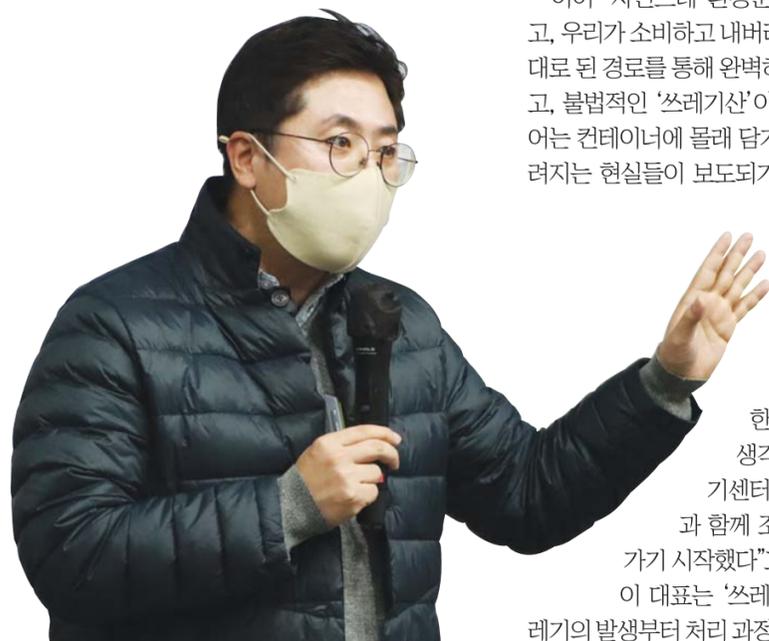
이어 “강연에서도 한반도 밖을 쳐다보며 사는 시야를 알려드리려 노력한다”면서 “나만 안전한 세상은 없으며 이웃이 안전해야 나도 안전하고, 옆집 아이가 안전해야 내 아이도 안전하다. 공존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가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대표는 기후위기와 쓰레기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의 힘을 이길 수는 없지만,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일회용 경제에서 다회용 경제로 하루속히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결국 소비를 멈추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무지막지한 쓰레기들을 만들어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지구 전체를 떠도는 상황은 인류에게 비극”이라며 “소비는 지속하되 쓰레기는 덜 나오는 방식을 찾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대표는 “지금의 자연과 지구에 존재하는 동물들과 공존해야만 한다. 그 원리와 책임을 가르치고 앓음한 미래를 바꾸기 위한 길에 더 많은 이들이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도 입시만이 아닌 미래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BTS 정국, K팝 가수 최초 월드컵 개막식 공연 /사진 뉴스스 ▲‘블랙 팬서2’ 33만명 동원… 100만 돌파 목전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소설가로 등단 ▲이강인, 월드컵 ‘주목할 아시아 영건 5인’ 포함



▲‘대세’ 박민지, KPGA 시즌 최종전 우승 /사진 뉴스스 ▲4년 만에 서울 개최 ‘서머너즈 워’ 월드 챔피언십, 申 ‘타스’ 우승